

소금 좋아하는 무스 때문에



▲ 캐나다 고산 마을에 등장한 공지 전광판(위)과 차량을 핥고 있는 무스. 사진=유튜브(C.J Himself) 캡처

캐나다의 한 마을에서 사슴 무스가 차량을 핥지 못하도록 하라는 문구를 전광판으로 공지에 눈길을 끌고 있다.

캐나다 앨버타주 고산마을인 재스퍼 지역에서는 자동차에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금을 사용하는데, 무스가 이 소금을 핥아먹는 일이 잦아지면서 위와 같은 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무스의 이러한 행동은 야생동물이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제설용 소금 맛에 익숙해지게 만들어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현지 당국의 설명이다.

재스퍼국립공원 측은 “무스가 차량에 뿌려진 소금을 핥도록 내버려두는 일은 동물과 차량 또는 사람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.”면서 “무스가 차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스를 발견하는 즉시 멈추지 말고 피해서 돌아가는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이어 “무스는 위험을 느끼면 도리어 공격할 수 있다.”면서 “무스의 천적인 늑대 수가 감소하면서 무스의 개체 수는 점차 늘고 있다.”고 덧붙였다.

무스는 사슴과 중 가장 큰 동물이다. 몸무게가 680kg까지 나가며,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‘숲의 왕’으로 알려져 있다.

햄버거 하나 사려고 14시간 대기

지난 20일 문을 연 ‘인앤아웃버거’ (In-N-Out Burger) 콜로라도주 매장이 햄버거를 사려는 사람들로 온종일 문전성시를 이뤘다.

인앤아웃버거는 이날 오전 콜로라도주 오로라시와 스프링스시에서 두 개 지점을 동시 개장하며 콜로라도주에 공식 진출했다. 이 소식에 콜로라도주 각지에서 수만 인파가 몰려들었다.

아침 일찍부터 늘어난 줄은 매장 밖으로 길게 이어졌다.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매장 내 식사를 할 수 없는 탓에 햄버거를 포장해 가려는 드라이브 스루 이용객이 몰리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.

교통 지도에 나선 오로라시 경찰은 “쇼핑몰을 두 번 둘러싸고도 남은 드라이브 스루 행렬이 3.2km까지 늘어 있다.”며 다른 경로를 이용하라고 알렸다.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줄은 늘어났고, 대기 시간도 12시간에서 14시간으로 연장됐다.

오로라시 지점 마지막 손님도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햄버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말 동안 오로라시 매장에서 팔려나간 햄버거만 6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.



▲ 햄버거를 사기 위해 길게 늘어난 차량 행렬. 사진=유튜브(Denver7) 캡처

콜로라도스프링스시 지점에서는 개장 사흘 전부터 트럭을 주차하고 기다린 남성이 첫 손님으로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. 켄 비지니라는 이름의 남성은 “휴가를 이용해 줄을 섰다. 즐겁고 신나는 경험이었다. 기다린 걸 후회하지 않는다.”고 밝혔다.

에어컨, 와이파이 설치된 범죄용 땅굴

막대한 현찰을 노린 땅굴이 멕시코에서 발견됐다. 높이 1.7m, 폭 1.2m 규모로 매우 정교하게 판이 땅굴의 길이는 무려 116m에 달했다. 굴 속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고, 외부와의 교신을 위한 와이파이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.



▲ 에어컨, 와이파이 설치까지 갖춘 범죄용 땅굴이 발견됐다. 사진=유튜브(Noticias Telemundo) 캡처

멕시코 과나후아토주 셀라야 지역에 있는 한 증권사의 금고로 연결된 이 땅굴은 지난 15일 지진경보기가 작동하면서 극적으로 발견됐다. 당시 이 회사의 금고엔 현찰 6억 페소(약 3천만 달러)가 보관돼 있었다.

경찰에 따르면 입구에서 금고 위치까지 길게 이어진 땅굴은 가정집, 상가 등 건축물 밑을 통과하며 2개의 길을 관통했다. 경찰 관계자는 “길이와 시설을 보면 땅굴을 파는 데 적어도 수개월이 걸

렸을 것으로 보인다.”고 말했다. 전문가들은 “땅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소행이 분명하다.”고 입을 모은다. 지형학과 지질학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공법까지 능란한 조직이 아니라면 이런 땅굴을 파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.

일각에선 땅굴 파기에 전문적 노하우를 지닌 마약조직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. 미국-멕시코 국경에서 발견되는 땅굴과 비교할 때 규모나 시설이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.

땅굴을 판 일당은 지진경보기가 작동하자 일제히 도주, 행방이 묘연하다.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거된 용의자는 아직 한 명도 없다.

한남체인 내 코웨이 & 실드라이프

Covid-19 소독제품
여러종류 마스크 판매

정수기 / 비데 / 공기청정기 / 연수기
실드라이프 전기매트, 전기장판

정수기 판매 및 렌탈

714.523.9588 / 714.471.1843 5301 Beach Blvd, Buena Park, CA 90621 한남체인 내